

한국 경상수지: 7 월 흑자 축소는 수출 둔화 탓, 추가 인상 논거는 여전히 유효

2026.09.04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7 월 경상수지는 420.8 억달러 흑자로 전월보다 줄었지만 전년 대비로는 큰 폭 확대이며, 이번 축소는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나온 결과로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논거를 흔들지 않는다.

무슨 상황인가

2026 년 7 월 경상수지는 420.8 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 497.3 억달러보다 76.5 억달러 줄었지만, 1 년 전 같은 달 119.5 억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이 지표는 한국이 대외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지난달까지 흐름은 '수입이 줄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커지는' 구조였다. 이번 발표도 큰 틀에서는 이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속도에서는 변화가 감지된다.

표면 숫자와 실제 내용

흑자가 줄어든 원인을 뜯어보면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출이 더 크게 줄어든 데 있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수출은 전월보다 119.2 억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은 44.6 억달러 감소에 그쳤다. 축소분의 대부분(97.5%)은 상품수지에서 나왔고, 반도체·대미·동남아 수출 세 축에서 증가율이 동시에 꺾였다(반도체 +196.9%→+176.3%, 대미 +78.5%→+69.1%, 동남아 +105.4%→+74.7%). 다만 수출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다. 통관 기준 수출은 989.6 억달러(+63.0%)이고, 선박을 빼도 오히려 증가율이 더 높아 이번 호조가 일회성 대형 인도 때문이 아님이 확인된다. 수입 쪽에서는 원유 도입단가가 40.5% 오르며 물량 증가(+9.8%)를 크게 웃돌아, 가격 요인이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반면 소비재 수입은 3.0% 줄어 국내 수요 과열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정책 영향

현재 국면은 한국은행이 8 월 27 일 기준금리를 3.00%로 올린 긴축 지속 국면이므로, 이번 자료는 '추가 인상의 시기·속도'라는 틀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 틀에서 보면 원유 단가 상승과 견조한 대외 흑자 기조는 추가 인상 논거를 그대로 지지한다. 동시에 수출 증가율 감속과 소비재 수입 감소는 속도를 조절할 만한 완화 재료로 조금 더해진다. 다만 흑자 유지·전년 대비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긴축 종료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볼 포인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단가 상승 때문인지 물량 확대 때문인지는 아직 구분할 자료가 없어, 이번 감속의 성격을 판정하려면 반도체 물량·단가 분해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다음 달 상품수지가 400 억달러대를 유지하는지, 원유 도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는지가 이번 판단의 유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4 (이번)	2026 년 7 월 경상수지는 420.8 억달러 흑자로, 전월(497.3 억달러)보다 줄었지만 전년동월(119.5 억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확대다. 흑자가 줄어든 원인은 수입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수출 증가세가 한 단계 꺾인 데 있으며, 원유 도입단가가 40%대 뛰어오른 만큼 비용 측 물가 압력은 그대로 살아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논거는 유지되되 그
2026-08-06	2026 년 6 월 경상수지는 497.3 억달러 흑자로 5 월(386.1 억달러)보다 확대되고 전년동월(139.7 억달러)의 세 배를 넘어섰다.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만들어진 확장형 흑자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같은 자료 안에 원유 도입단가가 70% 넘게 뛰었다는 물가 측 부담도 함께 실려 있어서, 이번 지표를
2026-07-08	반도체 기저효과(+171%)와 유가 상승의 이중 수혜로 경상수지 흑자가 월 386.1B 까지 치솟았으나, 수출 집중도가 IT 에 편중되고 자본유출이 동시진행되면서 원화절상 압력은 제한적 — 일화성 피크로 봐야 함.
2026-06-05	반도체 수출 사이클 강화(+171%)가 견인한 경상수지 흑자 기록이나, 월간 모멘텀 약세·배당금 회수 가속·원유 가격 의존 심화는 지속성을 제한하는 내재적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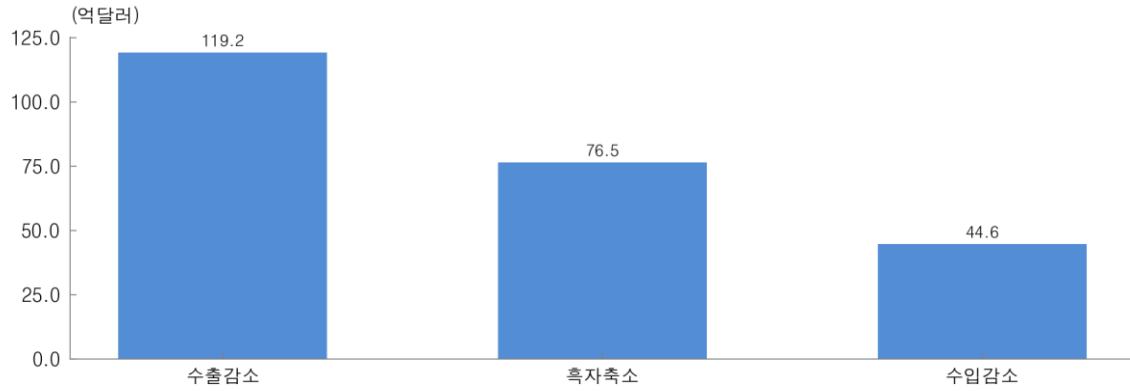
7 월 경상수지 흑자 축소 핵심 지표

지표	이번(7 월)	이전(비교 시점)	변화	맥락
경상수지	420.8 억달러 흑자	전월 497.3 억달러 / 전년동월 119.5 억달러	전월비 - 76.5 억달러, 전년비 +301.3 억달러	흑자 축소되나 전년비는 대폭 확대
상품수지	404.3 억달러 흑자	전월 478.9 억달러	전월비 - 74.6 억달러	경상수지 축소분의 대부분 차지
상품수출(국제수지 기준)	1,004.5 억달러	전월 1,123.7 억달러	전월비 -119.2 억달러 (전년비 +65.3%)	수출 감소가 흑자 축소의 주원인
상품수입(국제수지 기준, FOB)	600.2 억달러	전월 644.8 억달러	전월비 -44.6 억달러 (전년비 +21.7%)	수입 감소폭은 수출보다 작음
주요 수출 증가율 (반도체/대미/동남아, 전년비)	176.3% / 69.1% / 74.7%	전월 196.9% / 78.5% / 105.4%	각각 -20.6%p / -9.4%p / -30.7%p	세 축 모두 증가세 동시 둔화
원유 도입단가	배럴당 100.0 달러 (전년비 +40.5%)	도입물량 전년비 +9.8%	단가 상승폭이 물량 증가폭 압도	가격 요인이 수입 증가 주도
소비재 수입	89.6 억달러 (전년비 - 3.0%)	전월 전년비 +16.3%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내수 과열 신호로 보기 어려움
1~7 월 누계 경상수지	2,330.9 억달러	전년동기 598.2 억달러	+1,732.7 억달러	대외 흑자 기조 견조, 긴축 논거 유지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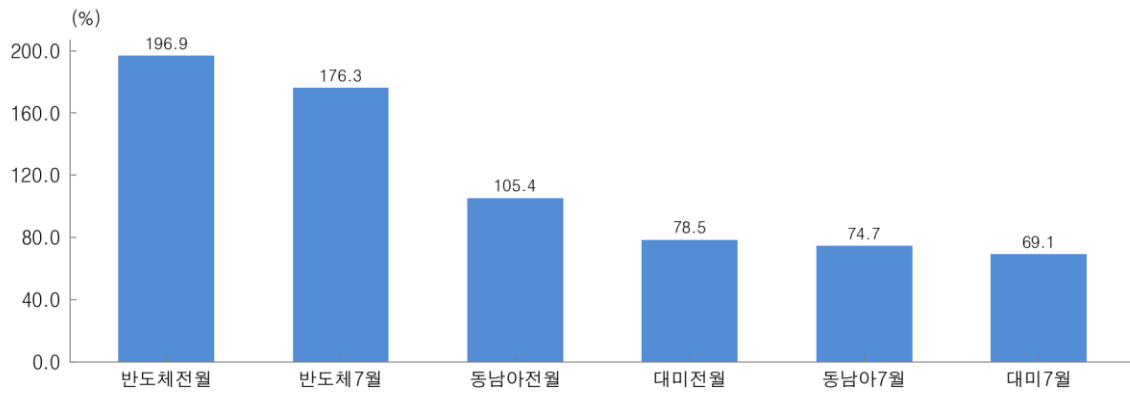
지표	값
경상수지(\$B)	42.08
상품수지(\$B)	40.43

7월 경상흑자 축소: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보다 큼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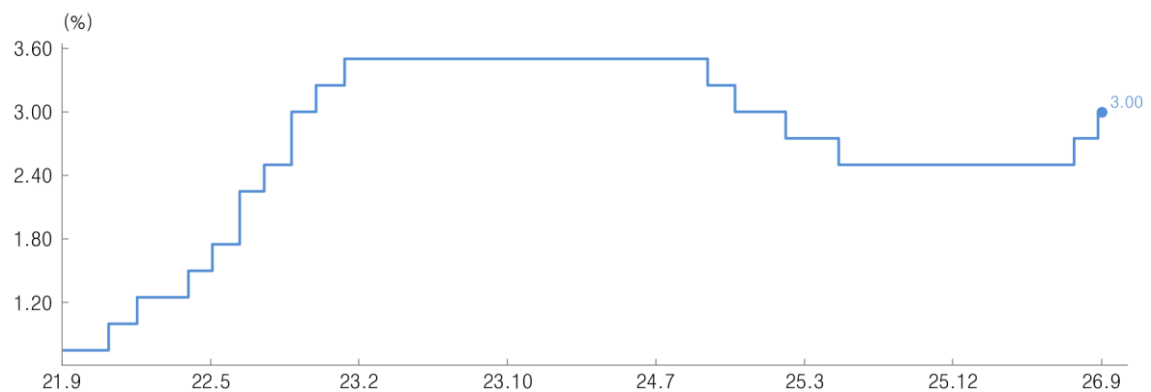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수출 증가율 둔화: 반도체·대미·동남아 3 대 축 (전월→7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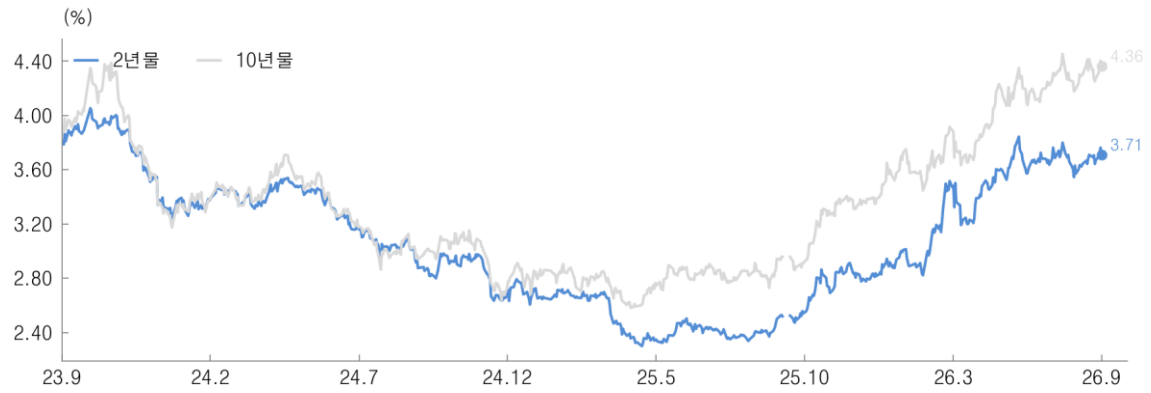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기준금리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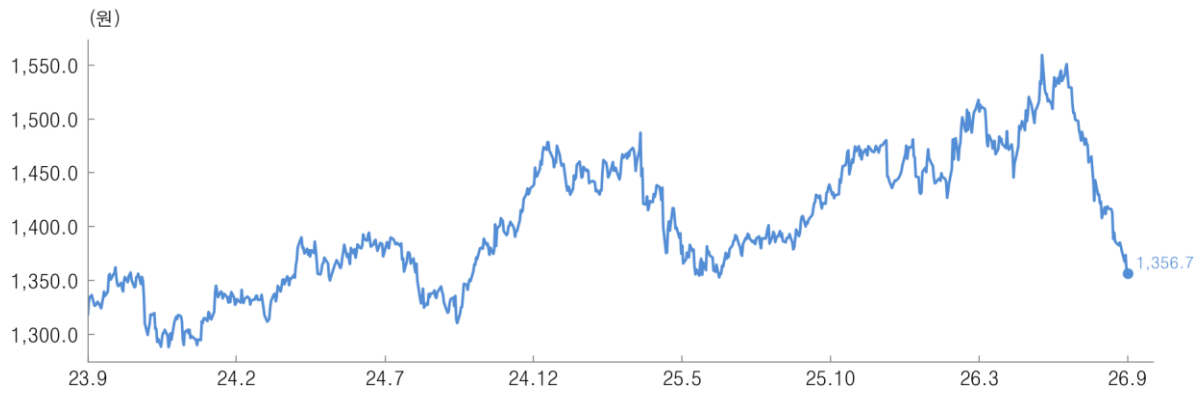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달러 환율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